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정치적 시민성 차이에 관한 연구*

문지혜** · 이숙정***

초 록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의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적 시민성(정치지식, 정치사회적 관심, 정치사회적 참여)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다중 미디어 이용자로서 후기 청소년들은 어떤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 유형을 파악하고,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별 이용자 집단 간 시민성의 차이를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대학 재학 중인 후기 청소년 271명의 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들의 미디어 레퍼토리는 플랫폼에 따라 <뉴스저이용집단>, <전통미디어 이용집단>, <온라인뉴스 이용집단> 순으로 나타났고, 뉴스주제별로는 <연성뉴스 이용집단>, <뉴스저이용집단>, <경성/연성뉴스 이용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기 청소년들은 뉴스미디어 저이용자로서 연성뉴스를 중심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미디어 이용집단과 온라인미디어 이용집단 간 정치지식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전통미디어 이용집단이 온라인미디어 이용집단보다 정치적·사회적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성/연성뉴스 모두를 소비하는 이용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인지적, 태도적, 행위적 시민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후기 청소년들의 시민성 수준은 낮았으며, 그들의 시민성 수준은 뉴스플랫폼보다 뉴스주제 선택에 따른 레퍼토리 유형에 따라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후기 청소년들의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를 살펴봄으로써 뉴스 이용과 그들의 시민성 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 정치적 시민성, 후기 청소년

* 본 연구는 2013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채구성한 것임.

**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일반대학원

***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교신저자, sjleecom@cau.ac.kr

I. 서 론

사회 구성원의 시민성 함양과 이를 위한 시민 교육 강화는 오랫동안 민주주의 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논의 되어왔다(Dahlgren, 2009). 시민성 또는 시민 역량, 즉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은 청소년 시기 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함양되어야 한다(이은미, 진성미, 2014). 그러나 그동안의 시민 교육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 또한 학교 내 교과과목을 중심으로 지식 위주의 시민성 교육이 진행되었다. 청소년의 시민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나 정서적 지원과 같은 가정 환경적 요소와 봉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과 같은 학교 경험이 사회참여의식을 포함하는 시민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예. 김위정, 2012).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 청소년의 시민성 수준은 낮은 편이며, 특히 신뢰와 참여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김태준 외, 2010, 김기현 외, 2000).

청소년들의 낮은 시민성 수준은 투표권이 보장되는 후기 청소년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투표권이 보장되었다고는 하나, 후기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Bynner, 2005). 또한 후기 청소년 시기는 학교 등 제도와 조직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개인 간의 차이가 커지는 시기이다(전상진, 정주훈, 2006). 그러나 대학 진학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후기 청소년 시기, 그들의 시민성과 시민교육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후기 청소년 시기의 시민성에 대한 개인 간의 차이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그들의 뉴스 미디어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뉴스 미디어는 정치사회화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종이 신문을 많이 읽을수록, 정치 지식, 정치적 관심, 정치 효능감, 정치적 대화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화된 사실이다(이숙정, 백선기, 한은경, 2013; 조성동, 나은경, 2011; McLeod et al., 2001). 그러나 뉴스 미디어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소셜미디어가 뉴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뉴스는 단순히 ‘새로운 소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가벼워지고 있으며(박선희, 2012), 인간적 흥미성의 뉴스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김경희, 2012). 종이신문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한 뉴스 이용, SNS를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뉴스 읽기가 과연 그들의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후기 청소년들의 뉴스 읽기와 정치적 시민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을 살펴보았다.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은 다중 미디어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패턴을 잘 보여주는 개념으로서, 개별 미디어의 효과보다는 조합적으로 구성된 미디어 이용 패턴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레퍼토리를 플랫폼 레퍼토리와 주제 레퍼토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다음,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로 분류된 이용자 집단에 따라 정치적 시민성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정치적 시민성은 전통적 의미의 의무적 시민성과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시민성으로 부각되는 관여적/자아실현적 시민성을 포괄하며, 이를 인지적, 태도적, 행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논의

1. 후기 청소년의 시민성에 관한 논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어느 시점에 위치시켜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별, 정책별, 학문별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대학생들도 청소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민법상 성인은 만 20세부터이다. 인간 발달의 특성에 근거할 때,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12~13세부터 성인과 유사한 신체적 특성을 보이는 18세 정도까지로 정의되며, 아동과 성인의 중간 시기이다. 그러나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하기에는 오늘날 사회적 실정과 맞지 않다. 성인 집단과 청소년을 구분 짓는 가장 큰 기준은 교육의 종료와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결혼과 같은 사회적 자립을 들 수 있는데(전상진, 정주훈, 2006), 오늘날은 80%

가 넘는 대학 진학률과 교육 기간 연장으로 인한 취업 및 결혼 등이 이후 연령대로 지연되면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천정웅, 2013).

한국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지만, 청소년 보호법이나 청소년 관련 정책 대상에서는 청소년 범위에서 벗어나는, 또한 신체적 발달특성에 의해 성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경제적, 사회적 자립 상태에 이르지 못한 시기에 있는 이들을 청소년학 분야에서는 후기 청소년기(post-adolescence)로 분류하고 있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후기 청소년기는 투표권이 부여되고 법적 의무가 부과되며 동시에 객관적인 구조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율적 선택과 결정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완전한 자립을 이루지 못한 사회적 특성을 지닌다.

무엇보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 위주의 교육 문화와 스펙 쌓기, 신자유주의 지배 구조하의 과열 경쟁 등으로 연결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후기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천정웅(2013)은 후기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긍정적인 발달 및 시민 역량 계발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Rosenfeld(2006)은 오늘날의 후기 청소년은 이전 세대보다 정치에 무관심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돕는 일이나 민주적 제도에 관여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후기 청소년의 시민의식 형성 및 시민성 계발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시민성(citizenship)은 복합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성은 각각의 연구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정의를 내려 사용되어졌다. 다시 말해, 시민성의 개념은 시대별 혹은 학자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된다는 것이다(황용석, 양승찬, 이준웅, 이원태, 2011). 먼저 시민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시민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사회를 이해하고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김민호, 2013; 이은미, 진성미, 2014). 포괄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시민성이라고 하며, 이 중에서 정치적 권력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을 정치적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이은미, 진성미, 2014). 그러나 정치적 시민성은 단순히 투표, 선거와 같은 제도화된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행해지는 다양한 시민 활동 및 운동까지도

포괄한다. 이는 시민성의 개념이 법률적 정의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 및 공동체가 요구하는 도덕적 행위 혹은 책임 등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Dalton(2008) 또한 시민성을 의무적 시민성(duty-based citizenship)과 관여적 시민성(engaged citizenship)으로 구분하였다. 의무적 시민성은 세금 납부, 병역 의무 수행 등과 같이 형식적인 의무나 책임에 관한 측면을 강조하고, 관여적 시민성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 사회에 대한 관심, 사회적 봉사 활동, 시민 단체 참여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여적 시민성은 Bennett et al.(2009)이 언급한 자아실현적 시민(actualized citizen)으로서의 정체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시민들은 자아실현적 측면에서 개인적인 가치와 관심사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비제도화된 참여행위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Bennett et al.(2009)은 의무적 시민성의 경우 제도 교육이나 매스 미디어 등 하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배양되는 한편, 자아실현적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디지털 미디어와 같은 상호작용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배양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김은미, 양소은, 2013; 민영, 노성중, 2011; Dalton, 2008), 정치적 시민성을 의무적 시민으로서의 인지적·태도적·행위적 차원과 관여적/자아실현적 시민으로서의 인지적·태도적·행위적 차원을 모두 살펴보았다. 첫째, 의무적 시민으로서 인지적 측면의 시민성은 민주주의 제도, 정치 과정, 정당의 구성과 기능 등과 관련된 구조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관여적 시민으로서 인지적 측면의 시민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주된 현안과 이슈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즉 시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둘째, 의무적 시민으로서 태도적 측면의 시민성은 정부기관 및 정책, 정당 및 정치적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관여적 시민으로서 태도적 측면의 시민성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소비자 문제, 교육,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과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의무적 시민으로서 행위적 측면의 시민성은 선거 참여 등과 같은 제도적 참여를 의미하며, 관여적 시민으로서 행위적 측면은 서명운동, 불매운동, 집회 등 대안적 참여를 의미한다.

2. 뉴스 미디어 이용과 시민성

뉴스 미디어의 정치사회화 역할은 이미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 즉 뉴스 미디어 이용은 정치 및 사회적 이슈를 접하고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나아가 시민 사회 참여까지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미디어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부재하던 시절에는 가족이나 학교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은 지인이 정치 지식 습득 및 참여 등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간주되었다(성동규, 양소정, 김양은, 임성원, 2007). 그러나 1970년대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가령, Norris(1996)는 텔레비전 뉴스 혹은 시사 프로그램 시청이 정치 관련 활동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텔레비전 시청량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텔레비전 시청이 사회 신뢰와 정치 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Putnam(1995)과는 상반된 논의이다. 그러나 Norris(1996)의 연구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측정함에 있어 시청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을 고려해야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연구 역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시청 수준이 높을 경우, 공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고 나아가 투표 참여 행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김정기, 이정기, 2011; 김주환, 2001; 송종길, 박상호, 2009).

한편, 종이신문을 통한 뉴스 소비는 대체로 정치 지식 및 공중 지식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신문을 많이 읽을수록 정치 지식이 증가하고 정치 효능감이 높아지며, 이는 곧 투표 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이효성, 김인경, 2003; 조성동, 나은경, 2011).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이용과 사회 혹은 정치 참여 간 관계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인터넷은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르게 상호작용성이라는 독특한 기술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공간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치적 견해를 타인과 공유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경민, 송효진, 2010). 그러나 인터넷 뉴스 이용 역시 전통 미디어와 비슷하게 사회 및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시킬 수도 있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Katz와 Aspden(1997)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도와 투표 행위와 같은 실질적인 정치 참여 간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즉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과 적게 이용하는 사람 사이의 정치 참여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의 연구에서는 타인과 자신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뉴스를 이용할 경우, 정치적 신뢰를 높이고 정치 냉소주의를 감소시키며 나아가 정치 의사전달이나 정치 토론, 투표행위 등과 같은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호, 2009; 성동규, 김양은, 김도희, 노창희, 2009).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은 투표참여, 선거활동과 같은 전통적 참여를 비롯해 집회 및 시위와 같은 대안적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민영, 노성중, 2011). 그러나 단순히 시간을 보내거나 재미 혹은 오락의 목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참여 행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최민재, 이흥천, 김위근, 2013),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사회적 이슈를 접하고 나아가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황유선, 2011).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SNS가 단순히 타인과 관계를 맺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거나 전파하고 나아가 투표 독려 및 정치 토론과 같은 정치 참여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이병혜, 2013; 최민재, 이흥천, 김위근, 2012, 2013).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SNS 이용과 사회 및 정치 참여 간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많은 연구들이 SNS가 후보자 선택 및 투표 행위,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이동희, 황성욱, 2013; 이병혜, 2013; 조화순, 김정연, 2012; 최민재, 이흥천, 김위근, 2012, 2013; 황유선, 2011).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다채널·다매체 환경에서 후기 청소년은 뉴스를 소비하기 위해 단순히 하나의 미디어만을 이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이 제한된 미디어에만 의존했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미디어나 플랫폼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양정애, 이현우, 2013).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개별 미디어의 이용과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미디어 환

경을 설명하는 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의 뉴스 이용과 그에 따른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뉴스를 소비하기 위해 어떠한 미디어들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이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양정애, 이현우, 2013; 이창훈, 김정기, 2013; 조은희, 2014).

3.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에 관한 논의

미디어 레퍼토리는 다양한 미디어가 공존하는 다매체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미디어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중 미디어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행위 및 습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강남준, 김은미, 2010). 레퍼토리 개념은 Heeter(1985)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채널 레퍼토리(channel repertoire)로부터 비롯되었다. 채널 레퍼토리는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채널 묶음으로서, 케이블 TV의 등장으로 채널 수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선호하는 채널 일부를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채널 목록, 즉 채널 레퍼토리를 형성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한다는 것이다. 채널 레퍼토리 개념과 유사하게,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은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미디어 이용자들이 구조적 여건과 개인적 선호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미디어 묶음을 형성한다는 것을 강조한다(심미선, 2007; Taneja, Webster, Malthouse & Ksiazek, 2012; Van Rees & Van Eijck, 2003; Yuan, 2011). 그러나 채널 레퍼토리는 레퍼토리를 구성하는 묶음의 수를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둔다면, 미디어 레퍼토리는 미디어 조합에 따른 이용자 집단을 분류해 내는 데 관심을 둔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 역시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다중 미디어 이용자들의 뉴스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자 레퍼토리 개념을 적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는 TV, 신문, 라디오, 포털, SNS 등 뉴스를 제공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가운데,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조합하여 구성하는 집합으로 정의 될 수 있다. 기존의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가 주로 이용자들의 레퍼토리 유형을 분류해 내는 데 머물러 있었으나, 본 연구는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를 구성하는 미디어 조합에 따라 이용자의 시민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단일 차원의 개별적 미디어 이용과 그 효과는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조합하여 구성하는 미디어 레퍼토리가 만들어 내는 효과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개별적 미디어 이용 효과 연구가 미디어 중심적 연구라고 한다면, 미디어 레퍼토리에 따른 이용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이용자 중심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강남준, 김은미, 2010). 최근 조은희(2014)는 20대에서 50대를 포함하는 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레퍼토리 유형을 찾아내고, 이용자 집단별 사회정치참여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뉴스이용자는 <TV뉴스전반/포털뉴스 이용집단>, <지상파 위주/포털뉴스 이용집단>, <뉴스저이용집단>, <다매체활용 뉴스이용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전반적으로 다매체활용 뉴스이용집단의 사회정치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SNS 등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후기 청소년들의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을 살펴보고,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이 그들의 시민성 함양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후기 청소년의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플랫폼별, 뉴스주제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2.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별 이용자 집단에 따라 시민성의 인지적 측면(구조적 지식, 시사적 지식)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별 이용자 집단에 따라 시민성의 태도적 측면(정치적 관심, 사회적 관심)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별 이용자 집단에 따라 시민성의 행위적 측면(제도적 참여, 대안적 참여)에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사

전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학원생 15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본 조사는 2014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설문지 29개를 제외한 271명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146명(53.9%), 여자가 125명(46.1%)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20.83($SD = 2.01$)세였다. 나이 분포를 보면, 19세가 90명(3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0세가 56명(20.7%), 22세가 34명(12.5%), 21세가 23명(8.5%), 24세가 22명(8.1%), 23세와 25세가 각각 19명(7.0%)로 나타났다.

2. 변인의 측정

1)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는 이용자가 뉴스를 접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조합하여 구성하는 집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먼저 플랫폼별로 텔레비전($M = 31.98$, $SD = 44.00$), 종이신문($M = 8.31$, $SD = 20.24$), 인터넷 포털($M = 61.13$, $SD = 52.83$), 언론사 뉴스 사이트($M = 12.49$, $SD = 21.68$), SNS($M = 66.61$, $SD = 72.01$), 블로그($M = 8.29$, $SD = 19.72$), 팟 캐스트($M = 3.43$, $SD = 13.31$)와 같이 총 7개의 플랫폼을 제시하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분)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는, 뉴스 주제별로 레퍼토리 유형을 분류해 내기 위해, 선행 연구(설진아, 2013)를 토대로, 뉴스 주제를 정치·외교($M = 2.23$, $SD = 0.88$), 경제·산업($M = 1.88$, $SD = 0.67$), 문화·교육·생활($M = 2.26$, $SD = 0.70$), 스포츠·연예·미담($M = 3.07$, $SD = 1.00$), 사건·사고·법률($M = 2.36$, $SD = 0.81$)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주제의 뉴스를 소비한 횟수(빈도)를 기준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시민성의 인지적 측면: 구조적 지식과 시사적 지식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시민성의 인지적 측면을 구조적 지식과 시사적 지

식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구조적 지식은 정치적 측면과 관계된 이론적 지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문항은 선행연구(송인덕, 2012; 양정애, 이현우, 2013)에서 사용된 척도를 토대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이 제시되었으며, 측정에 사용된 자세한 문항은 “올해 실시 된 국회의원 선거는 몇 대 총선”, “현재 국무총리의 이름”, “현재 새누리당 대표의 이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와 같다. 각각의 문항은 정답일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오답 또는 무응답에는 0점을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하여 구조적 지식의 점수로 삼았다.

시사적 지식은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지식으로, 설문이 시행될 당시의 정치 및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현안이나 인물에 대한 문항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총 4개의 문항으로, 자세한 진술문은 “‘골프장 여성 캐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난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을 차단하고자 시행된 이 법안은 무엇입니까?”,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국민 건강 보호와 서민 중세 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 법안은 무엇입니까?”와 같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정답일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고 오답 또는 무응답일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이를 합산 한 값을 시사적 지식의 점수로 삼았다.

3) 시민성의 태도적 측면: 정치적 관심과 사회적 관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시민성의 태도적 측면을 정치에 대한 관심과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김은미, 양소은, 2013)으로 설정하였다. 정치적 관심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총 3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자세한 진술문은 “정당의 활동”, “정부 기관의 활동”,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항목은 모두 5점 척도(1점=‘전혀 없다’, 5점= ‘매우 많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환경 운동”,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문제”, “국제 구호”에 대한 관심을 묻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항목은 모두 5점 척도(1점=‘전혀 없다’, 5점= ‘매우 많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시민성의 행위적 측면: 제도적 참여와 대안적 참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시민성의 행위적 측면을 제도적·의무적 참여와 대안적 참여(김은미, 양소은, 2013; 민영, 노성중, 2011)로 분류하였다. 제도적 참여는 정부 중심의 제도화된 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투표 참여”, “투표 권유”, “선거 캠페인 참여”, “정치인 및 행정기관에 민원 전달”, “정치인 및 정당 후원”에 관한 의향을 묻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제시된 항목은 총 5개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대안적 참여는 정부 중심의 주어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참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참여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대안적 참여 역시 선행 연구(김은미, 양소은, 2013; 민영, 노성중, 2011)를 바탕으로 하여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질문문은 “서명운동”, “불매운동 및 구매운동”, “집회 및 시위 참여”, “현수막·배지·스티커 게시”에 대한 참여 의향을 묻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항목은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와 신뢰도

본 연구를 위해 측정한 변인들의 기술 통계 값 및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시민성의 인지적 측면은 구조적 지식($M = 1.52$, $SD = 1.27$)이 시사적 지식($M = 1.18$, $SD = 1.1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측면 모두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M = 2.52$, $SD = 0.88$) 및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M = 2.54$, $SD = 0.77$)과 같은 태도적 측면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시민성의 행위적 측면은 제도적·의무적 참여($M = 2.38$, $SD = 0.77$)가 대안적 참여($M = 1.88$, $SD = 0.73$)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측면 모두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 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4에서 .88 사이의 값으로, 분석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

시민성에 대한 기술 통계 및 신뢰도

측정 변인		범위	평균(표준편차)	Cronbach's α
인지적 측면	구조적 지식	0-4	1.52(1.27)	-
	시사적 지식	0-4	1.18(1.18)	-
태도적 측면	정치적 관심	1-5	2.52(0.88)	.88
	사회적 관심	1-5	2.54(0.77)	.78
행위적 측면	제도적 참여	1-5	2.38(0.77)	.75
	대안적 참여	1-5	1.88(0.73)	.74

2.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 분석결과

1) 플랫폼 레퍼토리 분석결과

후기 청소년의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을 밝히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two-step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단계 군집 분석은 실루엣(silhouette)의 너비를 측정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실루엣은 군집 내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가깝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웃 군집 데이터가 어느 정도 멀리 대응하는지를 측정한 것으로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평균 실루엣의 너비가 0.5 이상일 경우에 군집 품질을 “좋은”으로, 0.2와 0.5사이를 “보통”으로 판단하며, 0.2보다 작을 경우에는 군집을 구분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Rousseeuw, 1987).

본 연구에서는 총 세 개의 군집이 도출되었고 이 때 실루엣의 너비는 0.4이었다. 군집 1의 경우에는 <뉴스저이용집단>으로 전체 응답자의 66.4%가 이 집단에 속했으며, 제시된 7개의 뉴스 미디어 이용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군집과 비교했을 때, 뉴스를 소비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몇 개의 미디어를 선별적으로 조합하여 이용하는 등의 뚜렷한 특색을 보이지 않고, 이용량의 측면에서도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군집 2의 경우에는 <전통미디어이용집단>으로 전체 응답자의 17.3%가 포함되었고,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 방송 등을 포함

하는 텔레비전($M = 97.13$)과 종이신문($M = 28.19$)의 이용량이 다른 미디어의 이용량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 집단은 타 집단과 비교했을 때,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은 전통 미디어를 중심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군집 3은 〈온라인뉴스이용집단〉으로 전체 응답자의 16.2%가 포함되었으며, 인터넷 포털($M = 114.55$)과 언론사 뉴스 사이트($M = 33.98$), SNS($M = 152.05$), 블로그($M = 32.05$), 팟 캐스트($M = 18.75$)의 이용량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 집단의 경우에는 온라인 뉴스 미디어를 주된 통로로 여기며 뉴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뉴스 플랫폼 레퍼토리 집단별 미디어 이용량 비교

		뉴스 플랫폼 레퍼토리 집단				
		뉴스 저이용 ($n=180$)	전통 미디어이용 ($n=47$)	온라인 뉴스이용 ($n=44$)	F	유의 확률
텔레비전	평균	15.96 ^a	97.13 ^b	27.95 ^a	119.53	.001
	표준편차	21.67	51.51	40.38		
종이신문	평균	3.17 ^a	28.19 ^b	8.07 ^a	35.83	.001
	표준편차	7.75	37.93	20.24		
인터넷 포털	평균	46.58 ^a	66.81 ^a	114.55 ^b	37.60	.001
	표준편차	35.39	35.90	84.23		
언론사 뉴스사이트	평균	6.94 ^a	14.04 ^a	33.98 ^b	34.81	.001
	표준편차	11.26	18.41	38.12		
SNS	평균	47.97 ^a	57.98 ^a	152.05 ^b	51.23	.001
	표준편차	48.65	46.87	106.54		
블로그	평균	3.34 ^a	5.00 ^a	32.05 ^b	52.93	.001
	표준편차	7.65	12.11	36.75		
팟 캐스트	평균	0.53 ^a	0.21 ^a	18.75 ^b	46.50	.001
	표준편차	2.33	1.46	28.31		

* 서로 다른 알파벳 위치자는 Duncan 사후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2) 뉴스 주제 레퍼토리 분석결과

후기 청소년의 뉴스 주제 레퍼토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세 개의 집단이 도출되었다. 군집 1은 <뉴스저이용집단>으로 전체 응답자의 25.1%가 포함되었으며, 제시된 5가지 유형의 뉴스 주제 모두 타 군집에 비해 이용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 집단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뉴스 이용량을 보인다는 것이다. 군집 2는 <연성뉴스이용집단>으로 전체 응답자의 43.5%가 포함되었고, 정치·외교나 경제·산업과 같은 경성 뉴스의 이용보다는 스포츠·연예·미담, 사건·사고·법률과 같은 연성 뉴스의 이용 경향이 높은 집단이다. 반면, 군집 3은 <경성/연성뉴스이용집단>으로 전체 응답자의 31.4%가 포함되었으며, 연성 뉴스를 비롯해 경성 뉴스의 이용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뉴스 주제 레퍼토리 집단별 뉴스 이용량 비교

		뉴스 주제 레퍼토리 집단				
		뉴스 저이용 (n=68)	연성 뉴스이용 (n=118)	경성/연성 뉴스이용 (n=85)	F	유의 확률
정치·외교	평균	1.52 ^a	2.13 ^b	3.30 ^c	183.11	.001
	표준편차	0.46	0.46	0.83		
경제·산업	평균	1.26 ^a	1.90 ^b	2.61 ^c	179.66	.001
	표준편차	0.28	0.39	0.63		
문화·교육·생활	평균	1.60 ^a	2.34 ^b	4.95 ^c	145.11	.001
	표준편차	0.44	0.49	0.56		
스포츠·연예·미담	평균	2.47 ^a	3.17 ^b	3.64 ^c	33.61	.001
	표준편차	0.88	0.85	0.97		
사건·사고·법률	평균	1.59 ^a	2.42 ^b	3.24 ^c	190.81	.001
	표준편차	0.70	0.46	0.81		

* 서로 다른 알파벳 위첨자는 Duncan 사후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한편,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 집단별 뉴스 주제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뉴스저이용집단〉은 연성뉴스 이용이 118명(4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뉴스저이용이 85명(31.4%), 경성/연성 뉴스 이용이 68명(2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미디어이용집단〉과 〈온라인 뉴스이용집단〉의 경우에는 뉴스 주제 이용에 있어 매우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전통미디어이용집단〉과 〈온라인뉴스이용집단〉 모두 연성뉴스 이용이 각각 24명(51.1%), 20명(45.5%)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4

뉴스 플랫폼 레퍼토리 집단별 뉴스 주제 이용 집단에 대한 교차분석

		뉴스 플랫폼 레퍼토리 집단		
		뉴스저이용	전통미디어이용	온라인뉴스이용
뉴스 주제 레퍼토리 집단	경성/연성뉴스 이용	38 (21.1%)	15 (31.9%)	15 (34.1%)
	연성뉴스 이용	74 (41.1%)	24 (51.1%)	20 (45.5%)
	뉴스저이용	68 (37.8%)	8 (17.0%)	9 (20.5%)
	합계	180 (100.0%)	47 100.0%	44 100.0%

$$\chi^2=11.43, df=4, p<.05$$

3. 시민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1) 시민성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분석결과

뉴스 플랫폼 및 주제 레퍼토리 집단별 시민성의 인지적 측면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뉴스 플랫폼 레퍼토리 유형별로 정치지식에 대한 이용자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뉴스 주제 레퍼토리의 경우에는 구조적 지식($F = 17.53, p < .001$)과 시사적 지식($F = 20.92, p < .001$) 모든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구조적 지

식에서는 <경성/연성뉴스이용집단>($M = 2.22$)이 <뉴스저이용집단>($M = 1.08$)과 <연성뉴스이용집단>($M = 1.4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뉴스저이용집단>과 <연성뉴스이용집단>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사적 지식 역시 <경성/연성뉴스이용집단>($M = 1.90$)이 <뉴스저이용집단>($M = 0.78$)과 <연성뉴스이용집단>($M = 1.0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뉴스 플랫폼 및 주제 레퍼토리 집단별 시민성의 인지적 측면 비교

인지적 측면		군집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뉴스 플랫폼 레퍼토리	구조적 지식	뉴스저이용	1.44	1.23	2.73	.067
		전통미디어이용	1.19	1.40		
		온라인뉴스이용	1.43	1.23		
	시사적 지식	뉴스저이용	1.14	1.15	0.67	.512
		전통미디어이용	1.36	1.24		
		온라인뉴스이용	1.43	1.23		
뉴스 주제 레퍼토리	구조적 지식	뉴스저이용	1.08 ^a	0.92	17.53	.000
		연성뉴스이용	1.44 ^a	1.27		
		경성/연성뉴스이용	2.22 ^b	1.37		
	시사적 지식	뉴스저이용	0.78 ^a	1.33	20.92	.000
		연성뉴스이용	1.06 ^a	1.10		
		경성/연성뉴스이용	1.90 ^b	0.88		

* 서로 다른 알파벳 위첨자는 Duncan 사후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2) 시민성의 태도적 측면에 대한 분석결과

뉴스 플랫폼 및 주제 레퍼토리에 따라 시민성의 태도적 측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뉴스 플랫폼 레퍼토리에 따라, 정치적 관심에 대한 이용자 집단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3.13$, $p = 0.45$). 즉 <전통미디어이용집단>($M = 2.81$)이 <온라인뉴스이용집단>($M = 2.61$)과 <뉴스저이

용집단)($M = 2.45$)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스 주제 레퍼토리 집단별로는 이용자의 정치적 관심과 사회적 관심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의 경우에는 <경성/연성뉴스이용집단>($M = 3.16$)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연성뉴스이용집단>($M = 2.51$), <뉴스저이용집단>($M = 2.03$)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역시 <경성/연성뉴스이용집단>($M = 2.89$)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 <연성뉴스이용집단>($M = 2.57$), <뉴스저이용집단>($M = 2.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뉴스 플랫폼 및 주제 레퍼토리 집단별 시민성의 태도적 측면 비교

태도적 측면		군집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뉴스 플랫폼 레퍼토리	정치에 대한 관심	뉴스저이용	2.45 ^a	0.88	3.13	.045
		전통미디어이용	2.81 ^b	0.92		
		온라인뉴스이용	2.49 ^a	0.77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뉴스저이용	2.46	0.78	3.00	.051
		전통미디어이용	2.76	0.67		
		온라인뉴스이용	2.61	0.79		
뉴스 주제 레퍼토리	정치에 대한 관심	뉴스저이용	2.03 ^a	0.78	40.85	.000
		연성뉴스이용	2.51 ^b	0.70		
		경성/연성뉴스이용	3.16 ^c	0.87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뉴스저이용	2.22 ^a	0.75	16.42	.000
		연성뉴스이용	2.57 ^b	0.71		
		경성/연성뉴스이용	2.89 ^c	0.73		

* 서로 다른 알파벳 위치자는 Duncan 사후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3) 시민성의 행위적 측면에 대한 분석결과

뉴스 플랫폼 레퍼토리 집단별 시민성의 행위적 측면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제도적 정치 참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 = 4.40$, $p =$

.013). 반면, 대안적 참여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참여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뉴스이용집단〉($M = 2.60$)이 〈뉴스저이용집단〉($M = 2.28$)과 비교했을 때, 제도적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뉴스저이용집단〉과 〈전통미디어이용집단〉, 〈온라인뉴스이용집단〉과 〈전통미디어이용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뉴스 주제 레퍼토리 집단의 경우에는 제도적 정치 참여($F = 22.80, p < .001$)와 대안적 정치 참여($F = 4.39, p = .01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두 요소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도적 참여의 경우에는 〈경성/연성뉴스이용집단〉($M = 2.80$)의 참여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연성뉴스이용집단〉($M = 2.39$), 〈뉴스저이용집단〉($M = 2.01$) 순으로 밝혀졌다. 대안적 참여의 경우, 〈뉴스저이용집단〉($M = 1.73$)과 비교하여 〈경성/연성뉴스이용집단〉($M = 2.08$)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뉴스저이용집단〉과 〈연성뉴스이용집단〉, 〈연성뉴스이용집단〉과 〈경성/연성뉴스이용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7

뉴스 플랫폼 및 주제 레퍼토리 집단별 시민성의 행위적 측면 비교

행위적 측면		군집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뉴스 플랫폼 레퍼토리	제도적 참여	뉴스저이용	2.28 ^a	0.78	4.40	.013
		전통미디어이용	2.54 ^{ab}	0.60		
		온라인뉴스이용	2.60 ^b	0.85		
	대안적 참여	뉴스저이용	1.81	0.73	3.01	.051
		전통미디어이용	2.09	0.72		
		온라인뉴스이용	1.96	0.74		
뉴스 주제 레퍼토리	제도적 참여	뉴스저이용	2.01 ^a	0.68	22.80	.000
		연성뉴스이용	2.39 ^b	0.71		
		경성/연성뉴스이용	2.80 ^c	0.76		
	대안적 참여	뉴스저이용	1.73 ^a	0.67	4.39	.013
		연성뉴스이용	1.88 ^{ab}	0.68		
		경성/연성뉴스이용	2.08 ^b	0.85		

* 서로 다른 알파벳 위첨자는 Duncan 사후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V. 결 론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들의 뉴스 이용 행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뉴스 이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뉴스 플랫폼 및 뉴스 주제 레퍼토리 집단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집단 간 정치적 시민성의 인지적·태도적·행위적 측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된 연구 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 플랫폼 레퍼토리의 경우에는 〈뉴스저이용집단〉, 〈온라인뉴스이용집단〉, 〈전통미디어이용집단〉과 같이 세 개의 집단이 도출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뉴스 레퍼토리를 분석한 선행연구(조은희, 2014)에서는 다매체 활용 집단이 도출되었으나, 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전통미디어 이용 집단과 온라인 뉴스 이용 집단이 구분되었고, 이를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다매체 활용 집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다수의 후기 청소년이 〈뉴스저이용집단〉에 속하고 있어, 사실상 후기 청소년의 뉴스 이용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주제 레퍼토리 집단 역시 〈뉴스저이용집단〉, 〈연성뉴스이용집단〉, 〈경성/연성뉴스이용집단〉과 같이 총 세 개의 집단이 유형화 되었다. 이 중 〈연성뉴스이용집단〉은 가장 많은 사례 수가 포함된 집단으로, 후기 청소년들이 대부분 흥미위주의 연성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뉴스 플랫폼 레퍼토리 집단별 시민성의 인지적 측면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뉴스 이용이 이용자들의 정치 지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후기 청소년이 〈뉴스저이용집단〉에 속해 뉴스 이용량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민성의 인지적 측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뉴스 주제 레퍼토리 집단별 시민성의 인지적 측면을 비교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구조적 지식과 시사적 지식 모두에서 〈경성/연성뉴스이용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경성 뉴스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뉴스 소비는 후기 청소년의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사안에 관한 시사적 지식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뉴스 플랫폼 레퍼토리 집단 간 시민성의 태도적 측면을 비교한 결과, 〈전통미디어이용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의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뉴스 주제 레퍼토리 집단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대한 관심 모두에서 〈경성/연성뉴스이용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연성뉴스이용집단〉, 〈뉴스저이용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후기 청소년의 방송뉴스와 종이신문을 중심으로 한 경성뉴스 읽기가 정치적 사안 및 사회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뉴스 플랫폼 레퍼토리 집단별 시민성의 행위적 측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제도적 정치 참여에 한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온라인뉴스이용집단〉이 〈뉴스저이용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제도적참여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스 주제 레퍼토리 집단의 경우에는 〈경성/연성뉴스이용집단〉이 제도적 참여와 대안적 참여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치적 동기나 소셜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정치참여 수준을 높인다는 선행 연구(민영, 노성종, 2011; 이병혜, 2013; 최민재 외, 2012)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 이용이 관여적 시민으로서의 비제도적 참여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읽기는 대안적 또는 비제도적 참여로 연결되지 않았다.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대안적 참여 및 시민적 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김은미, 양소은, 2013)에 비추어 볼 때, 뉴스 읽기는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이라는 요소와 상호작용하여 행위적 차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후기 청소년의 시민성은 인지적 차원, 태도적 차원, 행위적 차원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시민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뉴스 미디어 이용 또한 낮은 편이었으며, 이들은 연성 뉴스를 중심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13세에서 18세 정도에 이르는 청소년기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 정치적 민감기로 간주되어 왔다(이순형, 1994).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지식 및 정치적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으며(김은미, 양소은, 2013), 본 연구에서도 보여주듯이, 후기 청소년 시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정치적 시민성 또한 청소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청소년 뿐 아니라 투표권이 주어지는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결과이다. 특히 경성뉴스를 포함하는 주제 레퍼토리가 후기 청소년의 정치지식, 정치관심,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쟁점과 이슈들을 다루는 뉴스 읽기를 통한 시민성 계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성뉴스를 읽는 집단의 시민성 수준 또한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는 뉴스 읽기만을 강조하는 시민성 교육에 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의 시민성에 대한 전통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에 큰 차이가 없으나,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시민적 참여를 높인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전통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읽기가 개인적 수준의 정치적 시민성을 높인다면, 소셜 미디어를 통한 또래 집단 중심의 소통에 기반 한 시민성 교육은 참여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시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중 미디어 이용자의 뉴스 소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를 살펴봄으로써, 후기 청소년들의 뉴스 이용과 시민성 간의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뉴스 미디어 이용이 후기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 및 계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가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후기 청소년의 시민성이 뉴스 미디어 이용을 통해 발현이 된 것인지, 혹은 학교 및 가정교육 등을 통해 이미 형성된 시민성이 뉴스 이용에 영향을 준 것인지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뉴스 미디어 이용과 시민성 간의 선후 관계를 밝히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뉴스이용집단〉과 〈전통미디어이용집단〉 간 분명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연성뉴스이용집단〉과 〈경성/연성뉴스이용집단〉 간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용하는 플랫폼보다 선택하는 뉴스의 주제적 성격이 시민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결론이다. 본 연구는 단일 대학교를 대상으로 편의적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뉴스 플랫폼 레퍼토리 집단이 선호하는 뉴스 주제 및 가치에 따라 시민성의 인지적·태도적·행위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강남준, 김은미 (2010). 다중 미디어 이용의 측정과 개념화: 오디언스를 향한 새로운 시선. **언론정보연구**, 47(2), 5-39.
- 강남준, 이종영, 이혜미 (2008).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한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분석. **한국방송학보**, 22(2), 7-46.
- 고경민, 송효진 (2010). 인터넷 항의와 정치참여, 그리고 민주적 함의: 2008년 촛불시위 사례. **민주주의와 인권**, 10(3), 233-269.
- 김경희 (2012). 뉴스 소비의 변화와 뉴스의 진화. **언론정보연구**, 49(2), 5-36.
- 김은미, 양소은 (2013). '디지털 네이티브'의 시민성. **한국언론학보**, 57(1), 305-334.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정기, 이정기 (2011). 대학생 유권자의 텔레비전 선거뉴스 시청 동기와 투표정보효과 및 투표참여효과에 관한 연구: 2010년 제 5회 전국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1, 121-164.
- 김주환 (2001). 뉴스 매체의 사용과 정치에 대한 사적 대화가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2), 86-116.
- 민영, 노성종 (2011).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정치의식, 그리고 정치참여. **한국언론학보**, 55(4), 284-308.
- 박상호 (2009). 포털뉴스 이용동기가 인터넷 자기효능감, 정치적 신뢰, 정치 냉소주의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5), 153-175.
- 박선희 (2012). SNS 뉴스 소통. **언론정보연구**, 49(2), 37-73.
- 설진아 (2013). 소셜 뉴스의 기사유형 및 뉴스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7(6), 149-175.
- 성동규, 김양은, 김도희, 노창희 (2009). 인터넷 뉴스 이용 동기가 의견 발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2), 369-394.
- 성동규, 양소정, 김양은, 임성원 (2007).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대한 미디어 영향력 비교 연구: 뉴스이용 미디어에 따른 수용자 세분화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 5-50.

- 송인덕 (2012). 〈나는 꿈수다〉 이용이 대학생들의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TV, 신문, 인터넷 이용 효과와의 상대적 비교.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7, 101-147.
- 송종길, 박상호 (2009). 제 17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선거보도 이용동기가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 정보 효능감, 공중의 분위기 및 투표 행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1(2), 201-234.
- 심미선 (2007). 다매체 시대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2), 351-390.
- 심미선, 김은실, 하예린 (2009). 미디어 이용의 보완 및 대체에 관한 연구: 미디어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3), 317-364.
- 양정애, 이현우 (2013). 크로스플랫폼 뉴스소비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효과 격차: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치대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7(5), 162-203.
- 오치선, 김진화 (1999). 청소년의 직업 및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20, 187-211.
- 이동희, 황성욱 (2013). 정치 팟캐스트 콘텐츠 〈나는 꿈수다〉의 이용동기와 온·오프라인 정치참여: 서울 지역 2040세대 이용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26, 141-175.
- 이미영, 김담희, 김성태 (2010). 청소년 미디어 레퍼토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4(1), 82-106.
- 이병혜 (2013).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집단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30, 319-353.
- 이숙정, 백선기, 한은경 (2013). 교육수준에 따른 정치참여 격차: 뉴스미디어, 사회적 연결망, 정치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5), 113-136.
- 이은미, 진성미 (2014). 시민교육의 확장을 위한 평생교육의 의의: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3), 195-221.
- 이창훈, 김정기 (2013). 다중미디어 이용자의 이용특성과 사회적, 개인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7(3), 347-380.
- 임영호, 김은미, 김경모, 김예란 (2008). 온라인 뉴스 이용자의 뉴스관과 뉴스 이용. **한국언론학보**, 52(4), 179-204.

- 전상진, 정주훈 (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6), 261-285.
- 조성동, 나은경 (2011). 매체의 이용 장르와 기능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심리 및 사회자본 변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방송학보**, 25(1), 242-286.
- 조은희 (2014). 인터넷 이용자의 뉴스이용 레퍼토리와 사회정치참여. **한국언론학보**, 58(2), 64-87.
- 조화순, 김정연 (2012). 소셜미디어의 매체 특성과 참여의 커뮤니케이션: 반값등록금 관련 블로그와 트위터 내용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2), 95-130.
- 조혜영 (2013). 대학재학 후기청소년 세대의 사회적 위치 및 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5(2), 367-393.
- 천정웅 (2013). 후기청소년의 특성과 청소년단체의 역할강화. **글로벌청소년학연구**, 3(1), 63-88.
- 최민재, 이흥천, 김위근 (20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2011년 10·26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사례. **언론과학연구**, 12(2), 502-533.
- 최민재, 이흥천, 김위근 (2013).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의 SNS 정보 이용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관계: 201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와 오사카시장 선거의 비교. **한국언론학보**, 57(1), 392-421.
- 최현 (2007). 한·일 시티즌십 비교: 시민의식의 공적 영역 지향성과 능동성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3, 163-202.
- 최훈, 진영재 (2010). 후기 청소년의 직업특성 평가와 취업자 이미지 차이 연구: 서비스직업군 전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11), 69-94.
- 하승태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이 수용자의 정치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SNS 이용빈도 및 이용목적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4), 575-606.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2013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황용석, 양승찬, 이준웅, 이원태 (2011). 인터넷에서 의견추구성향과 정치참여변인과의 관계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8(2), 149-185.
- 황유선 (2011). 트위터 이용이 사회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전통 미디어 이용, 정치 관심, 트위터 이용 패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6), 56-81.

- Bennett, W. L. (2008). Changing citizenship in the digital age. In Bennett, W. L.(Ed.), *Civic online life: Learning how digital media can engage youth* (pp.1-24). Cambridge, MA: The Mit press.
- Bynner, J. (2005). Rethinking the youth phase of the life-course: The case for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studies*, 8(4), 367-384.
- Dahlgren, P. (2009). *Media and political engag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ton, R. J. (2008).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tudies*, 56(1), 76-98.
- Fletcher, A. C., Elder, G. H., & Mekos, D. (2000).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in Adolescence*, 10(1), 29-48.
- Heeter, C. (1985). Program selection with abundance of choice: A process model.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2, 126-152.
- Katz, J. E., & Aspden, P. (1997). A nation of strangers?. *Communications of the ACM*, 40(12), 81-86.
- Norris, P. (1996). Does television erode social capital? A reply to Putnam.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9(3), 474-480.
- Putnam, R. D.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4), 664-683.
- Rosenfeld, M. J. (2006). Young adulthood as a factor in social change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32(1), 27-51.
- Rousseeuw, P. J. (1987). Silhouettes: A graphical aid to the interpretation and validation of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mputational and applied mathematics*, 20, 53-65.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secondary school students in 38 countries*. Amsterdam, The Netherlands: IEA.

- Taneja, H., Webster, J. G., Malthouse, E. C., & Ksiazek, T. B. (2012). Media consumption across platforms: Identifying user-defined repertoires. *New Media & Society*, 14(6), 951-968.
- Van Rees, K., & Van Eijck, K. (2003). Media repertoires of selective audience: The impact of status, gender, and age on media use. *Poetics*, 31(5-6), 465-490.
- Yuan, E. (2011). News consumption across multiple media platforms: A repertoire approach.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4(7), 998-1016.

ABSTRACT

News consumption and citizenship in post-adolescence: A media repertoire approach

Mun, Jihye* · Lee, Sook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 consumption and citizenship in post-adolescence. Data was collected from surveys of post-adolescents aged from 19 to 25 (N=271). First, the type of news media repertoire that post-adolescent had access to were identified. Cluster analysis identified three groups, <light users>, <mass media users>, and <online news users> by media platforms, and three groups <light users>, <soft news users>, and <soft and hard news users>. Second, the differences in post-adolescents' citizenship by the type of news media repertoire were examined. Overall, the difference in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interests, and participation between <mass media users> and <online news users> was not significant.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soft and hard news users>, and <light users> or <soft news users> was obvious.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effects of a media repertoire, rather than those of a single media, should be considered as being of more importance.

Key Words: post-adolescence, news media repertoire, citizenship

투고일: 2014. 12. 15, 심사일: 2014. 2. 3, 심사완료일: 2014. 2. 9

* Graduate Student,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